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사법부도 능멸한 국헌문란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이미 접하신 보도겠지만 요약하자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이 사찰 당했다는 이야깁니다. 행정부 권력에 의해 말입니다. 이 행정부는 이미 입법부의 일원인 공당 하나를 박살내버렸던 권력입니다.

최근 공개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고 김영한 씨의 비망록을 보면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남을 박근혜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서실장 김기춘이 했다는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해지고 공룡화 될 때 견제수단을 얻어 판사들을 길 들여야' '양상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 이런 지시가 그랬습니다.

대법원은 조한규 씨 증언이 나오자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수 일색의 대법관들로 한 가득인 대법원, 그래서 법리보다는 이념에 치우는 판결로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이건만 이 정도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울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조한규 씨 증언은 일방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남김없이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면 헌법재판소는 시급히 결론을 내려 단 1분도 존립해서는 안 될 국헌문란 세력의 조기 퇴출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2월 16일(금) 1부 | '대통령 행세' 황교안, 수사받게 됐다

- [오프닝] 대법원장 사찰까지...현재, 국헌문란 방치 안 된다
- [김용민의 주간브리핑]
-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 확인...당연히 특검 조사 대상
- '대법원장 뒷조사 주장' 조한규와 사이 나쁜 세계일보도 인정
- "박지만, 박근혜 남편 신동욱 '총기 살해' 지시했다"
- 최순실 "내 땅 사달라"... 조양호가 거부하자 보복
- 문체부 전 관계자 증언 "몇만명은 아니나 블랙리스트 있어"
- 최경환 최대 위가...채용 청탁 의혹 관련 보좌관 구속영장
-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 '헌법 열애설'에 멘붕? 관련 퀴즈~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천운 났나...국제사회,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위해 세팅
- 뭐? 군사정보보호협정? 북한 SLBM 발사 시험, 한국만 몰라
- [경제의 속살] 이만배 민중의소리 기자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그 본질은?...박근혜 퇴출 시급성 확인
- 힘들고 지치겠지만 한국의 시민은 지칠 줄 몰라야 한다
- [공화국 논평] 국헌문란 폭로 조한규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

무시당한 법치주의

## 한겨레 황, 대통령 타령 전에 수사 받아야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경 123정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할 수 없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123정장은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인물이다. 한편 검찰 간부들은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검찰 간부들, 이듬해 전원 좌천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작품이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특검 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사실을 냈다.

## 세계일보 국정원이 사법부 사찰한 듯

국가정보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추적한 정황이 나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세계일보가 확인해준 것이다. 세계일보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서들은 복사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붙어 있고 파기시점이 2014년 2월로 각각 명시된 전형적인 국정원 문서이다. 대법원은 “만일 법관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체적 범죄집단

## 한겨레 정윤희 ‘7억 인사’, 靑 알고 있었다

한편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윤희가 7억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내용은 한겨레가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도 발견된다. 2014년 11월24일 업무일지를 보면 “김모씨, 부탁, 7억”이라고 적혀 있다. 이날은 정윤희 문건이 보도되기 나흘 전이다. 청와대가 ‘정윤희 문건’이 보도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朴 체면’ 지키려 혈세 천억 날려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 국부펀드 ICD로부터 4조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ICD가 아니라 두바이스마트시티였다. ICD는 “왜 우리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하나”고 따졌다.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사기꾼으로 지목되는 회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걸 고집했다. 이미 보도자료에다 “대통령 박근혜가 중동 순방에서 초대형 성과물을 내놨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물론 박근혜마저 ‘국제사기꾼에 걸려들었다’는 수모를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는 인천시 자체 사업이 됐고 해당 인천 검단스마트신도시 프로젝트는 1000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린 채 신기투처럼 날렸다.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 노컷뉴스 “박지만, 신동욱 총기 살해 지시”

박지만이 누나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 씨를 미안사에서 총기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녹취록이 나왔다. 육영재단 폭력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이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내용이다. 그는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박지만이 신동욱씨를 살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구설에 올랐던 신동욱씨가 제부라는 사실이 박근혜의 경선과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지만은 박근혜 편이었다.

## 한국일보 崔, 조양호 보복 이유는 ‘부동산’

최순실은 2014년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평창군 일대의 본인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수익원대의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의해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최순실이 이에 앙심을 품고 대통령을 통해 찍어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지난 5월 3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양호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통보했고, 속사정을 알고 있던 그는 바로 수긍했다. 사기에 살인교사에 이제는 공갈까지.

## 중일일보 최경환, 끝내 사법처리 벼랑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본인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 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덮기 위해 중진공 간부에게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부탁한 혐의다. 정모 보좌관이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은 최경환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된다. 최경환, 이렇게 몰락하나.

## 한국일보 우병우, 퇴직 후 자기 사건 수입

황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우병우.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2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바로 박태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였다. 저축은행 사태로 피눈물 흘린 분들이 얼마나 많다. 그 가해자를 수사하던 우병우는. 검사 옷 벗고 가해자를 변호하고 나섰다. 물론 변호사 수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사건, 어떻게 됐느냐. 불기소 처분됐다.

## 경향신문 현기환, 야인 시절에도 4억 슈킹

청와대 근무하던 때에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에게 술값 2500만원을 내라고 한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현기환. '야인' 시절에도 이른바 '스폰서' 기업인들로부터 총 4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 돈은 고급 차량 리스비와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됐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쓴 부분도 포함돼 있다. 특히 현기환이 기업인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를 경향신문에 증언한 모 중소기업 대표. "명색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힘없는 사람들을 막 대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많이 느꼈다"며 울분을 토했다. 친박들, 거의 요괴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선거무효 즉시구속  
대선무효소송 촉구서명 전달  
12월23일(금) 오후2시 대법원정문**

## 위기의 부역자들

### 한국스포츠경제 “블랙리스트, 김기춘 연루”

2014년 작성됐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현수 특별검사 팀에 고발당했다. 이에 문체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한국스포츠경제와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몇 만 명 수준은 아니라고 덧 붙였다. 또한 김기춘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해당 내용이 나오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일보 자매지 한국스포츠경제가 보도했다.

## 최보정의 하루

### 국민일보 ‘혼밥·방콕’ 하면서 비선만 만나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언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라이프스타일이 나온다. 일상화된 '관저 근무'와 '혼밥' 즉 혼자 먹는 밥으로 상징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각 부처 장·차관이 대통령 대면도 못할 때 최순실과 전속 미용사, '비선 의사'는 관저를 드나들며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를 관리했다. 이 틈을 노리고 최순실이 파고들었다. 투표는 박근혜에게 했는데 집권은 최순실이 한 셈.

## 국정 공백 방역 위기

### 朝鮮日報 AI 위기 '심각' 최고단계 격상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에 대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정부가 사료 공장, 도축장 등 가축과 관련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닭고기 등 가금류를 파는 전통시장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가금류와 달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을 꺼려 왔다. AI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가 1543만 마리에 이르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할 수 없이 카드를 꺼내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1999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조기에 엄중하고 확실하게 통제했다. '클라스'가 다른 민주정부였다.

꼼꼼한 국정 역사교과서

국민일보 5.16을 혁명으로 읽히도록 유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국민일보 기사 눈길을 끈다. 박정희를 어떻게 호의적으로 썼을까. 기호 학자인 한양대 이도흠 교수에게 박정희를 다룬 부분을 분석해달라고 했다. 고등학생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말이다. 여기서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5·16 군사쿠데타, 예전에는 따옴표 처리했는데 이번엔 따옴표를 뺐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다. 따옴표가 있다 함은 누군가는 혁명이라고 주장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따옴표가 있다면 이건 혁명 맞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댓글 사건으로 대선 개입 논란이 커지자 ‘대선에 개입해 여론 조작할 목적이었다면 330위 사이트를 골랐겠느냐. 대북 심리전이란 설명을 왜 못 믿느냐’는 논리로 박근혜를 옹호했다. 법 기술자들 역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유죄만은 막아 당선의 정당성은 지키려 애썼다. 세월호 참사 뒤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돈 더 받으려 저런다’고 모욕하는 친박 돌격대와 ‘일베류’ 편에서 국정조사특위를 무력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지금 탄핵 심의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박근혜’와 그 공범·부역자 청산 작업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은 촛불에 숨죽이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근혜를 비판하고 탄핵하는 대열엔 본의 아니게 휩쓸렸으나 체제가 흔들리는 듯하자 탄죽을 걸기 시작했다.

그 체제의 청산과 새 체제 건설은 40년 묵은 지난한 과제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들춰내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광장에서 촛불을 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현실. 지난 두 달 가까이 우리가 지켜본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의 대통령은 2백만 촛불이 남실대저 청와대의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촛불은 강했고, 국회는 민심을 거역하지 못하고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이제 촛불을 끄려는 악다구니와 박근혜의 아바타에 불과한 황교안의 대통령 눈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라 했습니다. 참회의 피눈물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한 피눈물입니다.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짓발은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2년 전, 이 시대의 발단인 정윤희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잠시 물러나 관저에서 드라마를 보며 쉬는 동안, 지난 4년간 박근혜 체제를 만들어왔던 공범들은 재지리를 지켜며 박근혜정적을 밀어붙이며, 세상을 슬금슬금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정책을 가로막는 것을 "적폐"라고 불렀습니다. 청와대 뒷방에서 정치공작을 벌이던 김기춘 역시 대통령을 방해하는 것에 "적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광범하게 일하며 사는 우리들의 권리는 그들에게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러올 차례입니다. 박근혜, 김기춘 그리고 이 정권에서 함께 권력을 누리던 그 모든 공범, 부역자들이 청산되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썩은 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적폐"라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12월 17일, 다시 광장에 모여 주십시오. 촛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도로 박근혜 세상을 만들려는 자들에게 우리의 촛불이 아직도 활활 타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광장의 촛불을 빼제하고 또다시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하려는 것에 대해 촛불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퇴진행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이겨내는 건 사람의 운기, 촛불의 열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제도, 국회의원도 아닌 추위 속에서 촛불을 켜 당신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오늘의 칼럼

한겨레 “‘박근혜로 끝’이라는 세력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의 “‘박근혜로 끝’이라는 세력들”입니다. “‘박근혜가 끝’이라는 쪽은 ‘보수여 죽어라’라며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자고 주장한다. 박근혜만 바꾸고 박근혜 체제는 살리자는 뜻이다. 이들은 ‘박정희-박근혜 체제’, 즉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토대로 한 수구보수 독식의 기득권체제를 40년 지탱해온 공동운명체였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정윤희 게이트 등 위기 때마다 이심전심으로 도와가며 이 체제를 함께 유지해왔다.